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40>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

계율(戒律)이라는 표현에서 '계(戒)'와 '율(律)'이 같이 쓰이지만 그 뜻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계'는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어 잘못을 막아 나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율'은 어떤 처신이나 부처님 뜻에 맞는지를 알아 '계'의 쓰임새를 잘 알고 지키자는 것이다. '계'는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는 마음을 중생의 통제하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율'은 중생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려는 부처님 뜻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서 으뜸을 삼는다.

계율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니, 계율이야말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바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가듯, 계율을 지키는 사람의 맑고 바른 삶은 부처님의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간다. <선가귀감> 40 장에서는 계율을 지켜야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若不持戒 尚不得疥癬野干之身 況清淨菩提果冀  
계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온 몸에 윤이 번져 털이 빠진 말라비틀어진 들어우도 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어찌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개나야(疥癬)'는 피부병의 일종으로서 온 몸에 윤이 번져 털이 빠지는 병이니 '비루병'이라고 한다. '야간(野干)'은 짐승이름인데 여기서는 '들어우'라고 번역하였다. 몸에 있는 털빛이 청황색이며 밤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우는

소리가 이리라고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청정보리과(淸淨菩提果)는 수행한 결과로써 얻어지는 맑고 깨끗한 깨달음이니 부처님의 세상을 말한다.

수행자가 파계하면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할 무간지옥에 간다고 한다. 이 지옥은 짐승들의 삶인 축생보다도 못한 세상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키지 못할 거라면 계를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렇지

## 계율 지키는 삶은 부처님 세상으로 통해

## 모두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만 계율이 갖는 참된 의미는 우리가 맑고 바른 삶을 살게 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가도록 하려는 데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重戒如佛 佛常在焉 須臾繫鵲珠 以爲先導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이 하면 부처님은 언제나 곁에 계신다. 초계(草繫)와 아주(鵲珠) 스님처럼 계율을 스승으로 삼을지어다.

어떤 비구가 길에서 도적을 만나 얼마 되지 않은 옷가지와 갖고 있던 물건들을 다 빼앗겼다. 도적들은 관청에 가서 바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풀줄기로 비구를 묶어 놓고는 멀리 도망가 버렸다. 발가벗긴 채로 숲 속에서 풀줄기에 묶여 있

던 비구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행여나 풀줄기들이 끊어져 풀들이 상할까봐 염려해 되도록 가만히 있었다. 밤이 되면 찬 바람에 몸이 떨렸고, 한낮에는 뜨거운 햇살에 온몸이 별갈게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독충이나 벌레에게 물렸어도 움직이면 풀이 끊어져 상할까봐 가만히 모든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었다.

그때 마침 사냥을 나왔던 임금이 별거승으로 약한 풀줄기에 묶여 고통스럽게 꼼짝 않는 이상한 비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비구를 풀어준 뒤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참아내고 있던 비구의 사연을 알게 된 왕은 크게 감명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되었다. 이 비구를 이때부터 '풀에 묶인 비구'라고 하여 초계(草繫) 비구라고 불렀다.

또 옛날 어떤 비구가 구슬을 줄에 꿰어 목걸이를 만드는 집으로 탁발하러

것을 훔칠 까닭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비구를 의심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비구가 거위가 삼켜버렸다고 하면 당장에 거위를 잡아 죽일 것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비구는 모진 수모와 곤욕을 달게 받으면서도 거위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많이 난 주인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비구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붉은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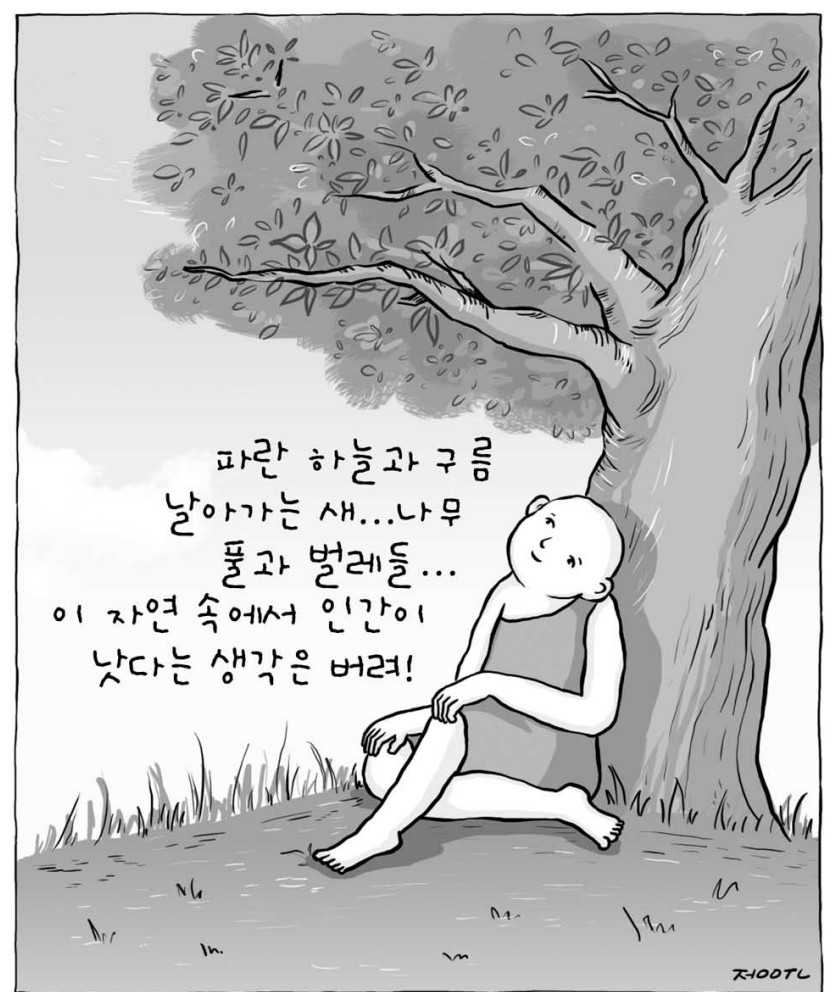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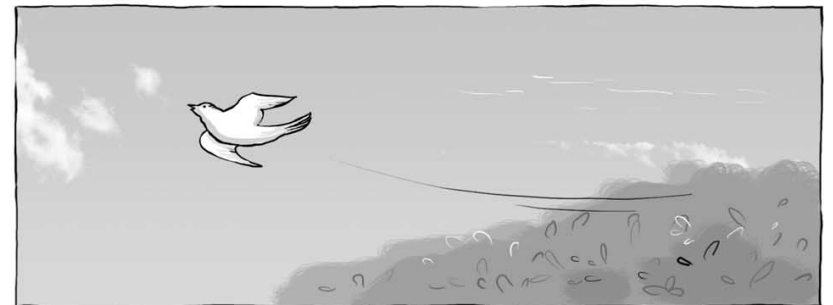
그때 구슬을 삼켰던 거위가 별갈게 흘린 피를 먹으려고 기웃거리다가 그만 헛김에 주인이 마구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 죽어버렸다. 그때서야 비구는 "내가 거위의 생명을 살리고자 이 모진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는데, 이제 거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구슬이 사라진 이유를 더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선이 음식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간 사이 갑자기 이 거위가 나타나 구슬을 고기살점으로 알고 삼켜 버렸으니, 이제는 죽은 거위 뱃속에서 그 구슬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이때부터 이 비구를 거위와 구슬의 이야기를 엮어 아주(鵲珠) 비구라고 불렀다.

초계와 아주 비구 이야기는 <대장경경론>에 실려 있다. 하찮은 풀줄기와 거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님들이 모진 고통과 곤욕을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오조를 사람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계율에 얽매인 융통성 없는 짓이라고 웃어넘기에는 무엇인가 아쉬운 점이 있다. 오히려 가슴 찡하게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성스러운 마음을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맑고 바른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의 계율이야말로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주춧돌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된다. 이를 알고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 하면 바로 눈앞에서 부처님의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원순 스님(승사님인원)

#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 아름다운 공존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영산재(靈山齋)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상징화한 의식절차입니다. 영산회상을 열어 방자(亡者)의 영혼을 극락왕생케 하는 게 목적이죠. 49차중에 가장 장엄하게 치러지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국가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

구(武運長久)를 위해서도 시연됩니다. 법화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영산재의 시연절차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선 의식도량을 상징화하는 장치들 만들죠. 그러기 위해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내어 가는 괘불이온(掛佛移運)부터 시작합니다. 괘불 앞에서 관불의식을 지릅니다. 이때 범패(梵唄)와 춤이 시연됩니다. 이른바 영신(迎神)과 정신(請神)에 이어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인 것입니다.

이날 스님들도 소연에 따라 용상광(龍象榜)을 짊니다. 증명(證明) 회주(會主) 법주(法主) 아산(魚山) 등으로

나누어 각기 임무를 수행하죠. 단이 마련되면 영가를 모셔오는 시련(侍衛)의식이 치러집니다. 시련은 행렬의 의식이죠. 나무인로왕보살반기(南無引路王菩薩薩婆)를 선두로 청사초롱, 영기(令旗) 등이 따릅니다. 제단마다 차례로 권공예배(勸供禮拜)하고 가피력을 기원합니다. 권공의식이 끝나면 축원문이 낭독됩니다. 마치 악으로 회향(廻向)의식이 치러집니다. 모든 신도들이 영을 지어 들면서 독경을 하죠. 이때 심바라밀정진을 상징하는 원형 반월형 우물자형 등으로 똥니다. 봉송 의례로 영산재를 마감합니다.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5)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61강 혜능의 세 가지 장엄

### 몸 어디에 불성이 숨어이나

나도 그동안 오해했었다. 심신의 작용. 그 안쪽 깊숙한 어디에, 폭 전황 속에 안고 가 있듯이, 불성이나 자성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선입, 불성은 기대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심신의 작용 바로 그것이, 그대로, 비약이나 가공 없이, 있는 그대로 자성이 곧 불성이다. 그래서 혜능 마조 지닐이 한 목소리로 분명히 말한다. "작용시성(作用是性), 작용 바로 그놈이 곧 자성이요 불성이다."

그동안 심신을 헤집어, 혹은 붓다 초기의 고행처럼 이 육신을 쥐어짜고 학대해서, 혹은 그것을 정지시키고서야, 그 극처에서 스파크처럼 만나거나 혜성처럼 등장하는 것이 불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 선언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나는 이 사실에 전율했다.

돈교란 '구원이 이미 와 있다'는 소리이며, 심즉시불심(卽是佛), '네가 예누리 없이 부처이다'가 그 선언이라고 한 바 있다. 심호흡을 하고, 고요히 응진(眞), 생각을 모아보라. 그대 주어진데 어디 하나 빠진 것이 있는가... 콧구멍도 두 개, 눈도 두 개, 코도 하나, 팔도 움직일 수 있고, 그뿐인가, 세상에, 생각도 할 수 있네! 부처나 성인과

비교해서 어디 하나 빠진 구석이 있으면 말해보라. 약간 한 두군데 좀 불편하신 분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중생의 몸은 그대로 부처를 닮아있다.

문제는 "내가 곧 부처다"를 사람들이 곧이 듣지 않으려 한다는데 있다. 그래서 오래도록 집을 떠나거나, 기벽한 행동을 통해 이 비밀과 만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게 다 길을 잘못 들었다. 혜능과 지닐 앞에 그런 꼴로 섰다간 몽둥이 세례 깨나 맞았을 것이다. 기억하자. 메테를링크의 파랑새는 자기집 처마에서 울고 있고, 선재 동자는 깨닫고 보니 길을 떠난 바로 그 자리였다.

### 자성, 저 물소리 속의 고요

이 우화를, 이 구도이야기를 흘러 들으면 안 된다. 정말 깊이 깊이 새겨야 한다. 호흡을 길게 하고 돌이켜 보라. 지닐은 묻는다. "저 물소리를 듣느냐?" 우리 모두는,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으로 들겠지만, 물소리를 듣는다. 단지 그것뿐, 더 이상 켤 것도 이루어야 할 일도 없다. 지닐은 그 물소리를 듣는 작용 속이 고요하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 어떤 분별도 없다. 그렇다. 다만, 듣는 것 거기가 모든 것이다. 혹은, 다른 것이 있을 것이고 탐색하거나, 분석을 하게

나, 가치를 시비하고 있으면, 어느덧 물소리는 흘러지고, 우리는 자기 속에 유폐되거나 이미지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이런 분별(分別)로 하여 우리는 물소리의 축복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선은 말한다. "너는 이미 완전하고, 반야 비라밀(般若波羅密), 구원은 성취되었다! 네게 허여된 축복을 끊어 부스럼, 스스로 훼손하지 마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

고, 육신 또한 빌줄 죄인이 아닌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라. 대승기신(大乘起信)은 한 마디로 "네 우주적 육신을 찬양하라!"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혜능은 나의 위대한 육신으로 불국토를 어떻게 장엄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충고한다. 다시 한번 읽는다.

[혜능] 불국토는 청정하여 이미지도 형태도 없으니, 어떤 물건으로 능히 장엄(莊嚴)하리요. 다만 이 정혜(定慧)의 보물로 임

[六祖] 佛土淸淨, 無相無形, 何物而能莊嚴耶. 唯以定慧之寶, 假名莊嚴, 莊嚴有三, 第一莊嚴 世間佛土, 造寺寫經布施供養, 是也, 第二莊嚴身佛土, 見一切人普行恭敬, 是也, 第三莊嚴心佛土, 心淨即佛土淨, 念念常行無所得心, 是也.

- "불국토는 청정하여 이미지도 형태도 없다." 삶은 이미 주어졌다. 우리의 삶은 다만, 그 안에서 경영될 수밖에 없다. 푸념하지 말지니, 지혜는 그 '위대한 수용'에서

것은 장엄치 않은 것이다.(菩薩...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라고 했다.

### 세상의 원리 마음속에 있어

- 혜능은 이 우주적 참여로서의 장엄을 세 가지로 특화했다. 하나는 '세간 불토의 장엄'이다. 세간불토는 '사찰이라는 신성한 공간'을 뜻한다. 거기 공양한다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에 의식적 의례적(儀禮的)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전을 배기고 외며, 절에 보시하고 스님들께 공양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둘째는 '몸으로 하는 불국토 장엄'이다. 이 몸을 경건히 잘 간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가리킨다. 혜능은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길잡이를 번듯이 하는 불사'보다 위대하다고 가르친다.

배려로서의 장엄보다 더 근본적이고 위대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불사'이다. '마음으로 하는 불국토 장엄'이란 내 마음을 언제나 맑고 환하게, 구름까지 없게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 마음 하나가 깨끗해지면, 곧 온 세상이 밝아진다. 사람이 남에게 하는 생각과 태도, 맑은 곧 스스로의 관심과 수준의 반영이다.

내가 도둑이면 모든 사람이 내 물건 훔쳐갈 도둑처럼 보이며, 자신이 부처이면, 모든 사람을 부처님 대하듯 손 모으고 공경하게 된다. 무소득심(無所得心), 세상에 내가 얻을 것도, 가질 것도 뭐, 별 대수나 싶은 마음, 그 여유로운 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그 가닥을 통해 솟음을 열고, 어느덧 사대해결의 부드러운 실마리가 열릴 것이다.

세상이 오직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고 오해이다. 세상의 원리는 따로, 즉 '마음'에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내 마음의 불국토 장엄하기



시로 장엄이라 일컫느니라. 장엄에 셋이 있으니 제1은 '세간의 불토(世間佛土)'를 장엄한다. 절을 짓고 경을 베껴며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이 이것이요, 제2는 '몸의 불토(身佛土)'를 장엄하니, 모든 사람을 보되 널리 공경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제3은 '마음의 불토(心佛土)'를 장엄하니,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토가 깨끗해지게, 넘넘 여할 티끌을 가진 신성한 몸과 마음을 누가 흠대하는가. 삶은 그토록 누추한 것이 아니

시작한다고 한 바 있다. 그때 문득 세상이 평등하고 화평해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 "정혜의 보물로 임시로 장엄이라 한다." 장엄이란 이렇다면 세상 속으로 나를 널리 공경을 행하는 것이 보살도 기대도 걸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으로 이 땅에 요익(饒益)을 주되, 나는 그것을 의식하거나 자랑(念心)이 언제나 무소득심(無所得心)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다.